

SKT 이프랜드, 미주 · 유럽 · 동남아 본격 진출

**- MWC 기간 중 미국·독일·동남아의 주요 통신사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 협력 체결**

**- 도이치텔레콤·티모바일US 고객 대상 마켓 테스트 및 공동 마케팅 진행**

**• ‘유럽·미국판 이프랜드’ 공동 제작해 2분기 중 독일어 버전과 함께 출시 예정**

**- 2억 가입자 보유 악시아타·말레이시아1위 통신사 셀콤디지와도 메타버스 사업 협업키로**

|  |
| --- |
| **엠바고 : (한국 시간) 온라인 기준 3/1(수) 08:00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셀로나 현지 시간) 온라인 기준 3/1(수) 00:00부터** |

**[2023. 3. 1]**

SK텔레콤이 글로벌 유수의 통신사들과 함께 미주·유럽·동남아 시장으로의 메타버스 서비스 진출을 본격화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MWC23에서 독일의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미국의 티모바일US(T-Mobile US), 동남아 11개국 사업자 악시아타(Axiata), 말레이시아의 셀콤디지(Celcomdigi)와 메타버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49개국에 동시 출시한데 이어, 주요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각 국가에 최적화된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번 이프랜드 글로벌 진출 협약을 위해 SK스퀘어의 박정호 부회장, SKT의 유영상 사장, 도이치텔레콤의 팀 회트게스 회장과 닥터 한스 위자야수리야(Dr Hans Wijayasuriya), 비벡 수드(Vivek Sood) 악시아타 공동 CEO, 다툭 이담 나와위(Datuk Idham Nawawi) 셀콤디지 CEO 등 ICT 관련 글로벌 주요 기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SKT는 각각 1억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글로벌 통신사와 협력함으로써 이프랜드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이치텔레콤·티모바일US와 독일/미국 고객 대상 마켓 테스트 진행**

먼저, SKT는 독일 대표 통신 사업자 도이치텔레콤, 전 세계 통신사 중 기업가치 1위 사업자 티모바일US와 이프랜드의 독일·미국 진출에 대해 합의했다.

SKT는 27일(현지시간) MWC주 전시장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에서 독일 대표 통신 사업자 도이치텔레콤과 미팅을 갖고 이프랜드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SK스퀘어의 박정호 부회장, SKT의 유영상 사장을 비롯해 각 사의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도이치텔레콤 측은 팀 회트게스 회장, 클라우디아 네맛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이치텔레콤과 티모바일US 고객을 대상으로 이프랜드의 마켓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며, 각 지역에 특화된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럽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도이치텔레콤과 함께 독일의 특정 도시를 본 뜬 가상공간과 전용 아바타와 의상 등을 함께 개발해 도이치텔레콤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SKT와 도이치텔레콤이 공동으로 마케팅 하는 식이다.

해당 마켓 테스트는 이프랜드 독일어 버전이 출시되는 2분기를 기점으로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각 사 고객 대상 마켓 테스트는 작년 5월 SKT와 도이치텔레콤의 ICT 동맹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 논의에 따른 결과물이다.

SKT와 도이치텔레콤, 티모바일US는 이번 고객 대상 마켓 테스트를 통해 유럽과미국에서 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남아 최대 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메타버스 서비스 협력 추진**

SKT는 28일(현지시간) MWC 현장에서 11개의 ASEAN 및 남아시아 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 약 2억 가입자를 보유한 악시아타, 말레이시아 1위 사업자인 셀콤디지와 각각 메타버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미팅에는 유영상 SKT 사장과 닥터 한스 위자야수리야, 비벡 수드 악시아타 공동 CEO, 다툭 이담 나와위 셀콤디지 CEO가 참석했다.

SKT는 악시아타의 전체 자회사 대상 이프랜드 서비스 확장과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 창출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사업 기회 협력 등에 합의했다.

또한, SKT는 셀콤디지와 말레이시아 시장 내 이프랜드 이용자 규모 증대 및 신규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T는 K-콘텐츠 등 한류 문화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동남아 지역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진출함으로써, 이프랜드의 서비스 영역 확장 및 진출로 파생될 다양한 사업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유영상 SKT 사장은 "이프랜드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각국 주요 통신사들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SKT 메타버스 서비스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닥터 한스 위자야수리야 악시아타 CEO는 “SKT와의 협력을 통해 악시아타 사업 지역의 고객들에게 메타버스를 포함한 최첨단 디지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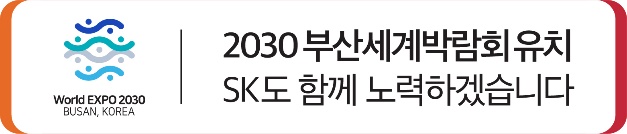
다툭 이담 나와위 셀콤디지 CEO는 “말레이시아의 최대 통신사 셀콤디지와 ICT 선도 기업 SK텔레콤과의 협력은 말레이시아의 메타버스 발전은 물론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끌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셀콤디지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양사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
| --- |
|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MWC23에서 독일의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미국의 티모바일US(T-Mobile US), 동남아 11개국 사업자 악시아타(Axiata), 말레이시아의 셀콤디지(Celcomdigi)와 메타버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2 : 유영상 SKT 사장과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이 MWC23 SKT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3 : 유영상 SKT 사장(왼쪽)과 닥터 한스 위자야수리야 악시아타 CEO가 협약식 후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사진 4 : 유영상 SKT 사장(왼쪽)과 다툭 이담 나와위 셀콤디지 CEO가 협약식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 관련문의**

**- 바르셀로나 : SKT PR실 정욱(010-9112-8636) 매니저**

**- 서울 : SKT PR실 김동영(010-7131-1001) 매니저**



**끝.**